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문화방송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요

1. 회의개최

- ㅇ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오후 3시
- ㅇ 장 소 : 상암MBC 경영센터 대회의실
- ㅇ 방송사 참석자 : 12명
- ㅇ 시청자위원 참석 명단 : 7명

  이규정 위원장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전경란 부위원장 /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교수

  김수정 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편집위원

  박성현 위원 /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윤여진 위원 / (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상길 위원 /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예술융합학부 교수

  정석희 위원 / 방송칼럼니스트

- ㅇ 시청자위원 불참 명단 : 3명

  박진수 위원 / (주)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단법인 점프 신사업팀장

  오수원 위원 /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

  홍성재 위원 /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

2. 의견제시, 시정요구

구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보도 보도제작	<뉴스데스크>, <100분토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교양	<탐나는TV>
	예능·오락 스포츠	<같이 펀딩>, <공부가 머니?>, <언니네 쌀롱>, <스포츠 다이어리>,
	기타	<김종배의 시선집중>, [의견제안] '주52시간 근무가 바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 시청자위원회 의견 발표 및 본부·국장단 답변 ◈

이규정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전체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이하 '마리텔V2')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 활동이 만족스러운가' 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대부분 위원님이 '매우 만족'은 아니라도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MBC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만족도가 높은데요,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시청자위원회 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MBC가 잘 되도록 위원들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사장님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변창립 부사장 : 저희는 설문을 하지 않아도 다 '대만족'으로 나올 겁니다. (웃음) 오늘 스포츠 국장 대신 송민근 스포츠제작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요즘 가을 개편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편성과 제작 본부에서 새로운 편성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청자위원회 활동과 좋은 제언이 더해지면 개편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고맙습니다. 먼저 편성, 보도, 보도제작, 시사교양 분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위원님.

김수정 위원 :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추석 명절 관련 보도 주제가 다양하지 않고 시의성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태풍 '링링' 보도에 대한 것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반일감정 보도에 대해서 MBC가 어떻게 보도 했었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태풍 '링링' 관련 보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다양한 지역의 태풍소식과 발 빠른 취재, 대처에 좀 더 무게를 둔 보도를 한 부분이 다른 방송사보다 더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고 추석 관련 보도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각 지역의 모습을 비춰주는 점에서 다양하게 빨리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추석 관련한 <뉴스데스크> 보도의 양이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었고 대부분의 내용이 교통 혼잡, 대이동에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명절 시기에 일어난 사건, 차량사고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인재사고 부분이 부각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석을 지내보니 이제 추석은

설 명절 같지 않고 명절이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가족행사이지 마을행사나 지역행사가 되지 못합니다. 명절을 계기로 공동체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질 기회를 갖고 그런 부분을 Q 방송이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12일, 고속도로 정체상황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13일에는 '민족 명절 거리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에도 있다'가 보도됐습니다. 이후에는 '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 14일에 추석 연휴 하루를 남기고 '하루 종일 꽉 막힌 상행선', 15일에는 '연휴 마지막 날 밤 11시쯤 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같이 육상교통 상황의 혼잡과 정체상황에 집중한 느낌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9월10일 '연휴 전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미리 보도한 부분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간다] 배송전투에 대한 보도도 다른 언론사에서 보지 못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계기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혼추족), 동포, 이주민, 소외 이웃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작은 지적이지만 13일 '후지 사과·신고 배?…"이른 추석엔 국산 품종이 제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보다 일찍 보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장바구니 관련 필요한 정보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맞추길 바랍니다.

명절시기마다 바뀌는 문화와 변화들, 이런 것을 뉴스에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공동체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아젠다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문제, 교통상황 관련 이슈가 중요하지만 가족의, 마을의, 이웃의 공동체인 우리의 문제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 공동체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독자적인 아이템으로 보도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현 위원님.

박성현 위원 :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8/19) '목숨에도 등급매긴 죽음의 발전소'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8월19일에 방송을 해서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방송은 특히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취재해서 알찬 느낌을 주는 보도였습니다.

재해 사망 시 발전사 직원(원청)이냐, 도급인(하청직원)이냐에 따라 감

점계수를 차등화해 부서별 평가에 적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 역시도 발전사가 계약할 때 설정했던 인건비의 절반 가까이를 빼돌려 왔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더욱 중요한 작업환경의 악화, 실제로는 김용균 법이 많이 논의되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증가했다는 점을 잘 짚어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참된 저널리즘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월2일(63회) 방송 '논두렁시계의 배후 국정원? 검찰?'은 요즘 조국 관련 검찰수사가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인 맥락 속에서 배치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청자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의 배후가 국정원이냐, 검찰이냐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미제사건이고 많은 국민이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보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찾아 인터뷰를 했고 그가 '국정원과 관련한 것이고 검찰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것 이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정보제공이나 의혹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보니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많은 내용을 알차게 다루기 힘들었다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보충적인 주제들을 다뤘으면 어땠을까,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행사 시스템, 구조적인 폐해와 개혁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항상 시청자의 요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탐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기대와 격려의 마음으로 관찰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의 조국 전 후보자, 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는 다른 언론사들과 큰 틀에서 차별화된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타 언론사가 누락시킨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검증과 확인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전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많은 시청자가 타방송사에서 이탈해 MBC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 만큼, 검증과 확인에 입각한 좋은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예로 탐사기획팀의 미성년자 논문을 추적, 확인한 보도(9/11)를 말씀드렸고요, '후쿠시마 방사능 집중 취재'(9/2~4) 기획은 이미 타 방송사에서도 했습니다만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들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 인터뷰를 3일에 쪼개어 여러 날에 걸쳐 쓰다 보니 내용은 다르지만 다시 본 뉴스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은 취재내용 양이 많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늘리는 느낌을 받아서 아쉬웠습

니다. 목장 주인도 이틀에 걸쳐서 나왔는데 다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테 마을의 한 목장이다'라고 보도한 후,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을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인터뷰는 다시 '이타테 주민'으로 나옵니다. 이타테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을 갔는데 또 이타테 주민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요. 타 방송을 참고해 봤을 때 이타테가 여러 지구로 나눠져 있다고 추측되는데요, 리포트 내용과 자막이 엇갈려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명의 세부사항에도 신경써 주길 바랍니다.
[정치적 참견시점]은 인기 코너이고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코너로 자리 잡아서 더욱 기대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아쉬운 것은 '참견시점'인데요, 참견의 내용이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한 사실 확인과 검증에 근거한 객관성, 중립성의 바탕위에 <뉴스데스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목소리나 순발력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본을 준비해서 빨리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좋은 코너이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를 넣고 개성을 살리는 코너로 제작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앵커가 진행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보충해주시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마 기자님이 '비판과 감시가 언론의 기능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MBC보도국의 색깔과 개성이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도국 인권사회팀의 '바로 간다', '소수의견'과 '법이 없다'도 좋더라고요. 이러한 코너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약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 '법이 없다'에서 잊지 않고 꾸준히 다루는 유성기업 노조 관련 문제, 현대자동차 대기업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폭로하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뉴스데스크>, MBC 언론이 나아갈 방향이고 참된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 보도는 기획은 좋았는데 내용은 아쉽습니다. 심층적인 내용이 없고 시간이 짧아서인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반복해서 요약해주고 끝낸 느낌이 1회에 비해 2회가 강했고 1회는 보충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뉴스는 재미있고 잘 진행하고 계셔서 여러 곳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문제를 <뉴스데스크>나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MBC뉴스로 많은 시청자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라이브

톡을 보고 있는데요, ‘나 여기로 바꿨다, MBC에 다시 돌아왔다’, 동시에 ‘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하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스포츠 뉴스 7분, 날씨를 제외하면 실제로 67분이더라고요. 예전에 스포츠 뉴스가 재미있어서 길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시사소식에 대한 갈증이 있고, MBC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보니 저 역시 뉴스가 짧아 아쉽습니다. 뉴스가 더 길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이 점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정 위원장 : 박성현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견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오수원 위원님과 박진수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오수원 위원님이 의견 주신 <100분토론>입니다. ‘조국임명 강행, 정국 후폭풍은?’(842회)이 방영되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진행예고를 보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들어왔던 얘기보다 새로운 것이 없었고, 이는 패널의 이력만 보면 당연하다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여당, 야당 각 두 명씩 참여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읊어대는 것에 그칠 뿐, 시청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유연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민희 패널의 경우는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국민이 조국 장관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 했습니다. 과연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만약 그녀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 토론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패널이 <100분토론>에 참여한 이유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패나 대변인을 자처함으로써 자신을 당에서 부각하기 위한 것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최민희 패널 같은 사람을 조국임명 관련 주제의 토론자로 초청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PD는 알았으면 합니다.
토론의 내용에서도 특정 정당의 전략, 전술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등, 사담으로 나눌만한 내용의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패널을 선정하고자 했다면, 전 현직 국회의원은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지요. 차기 총선에 참여하길 원하는 의원들을 패널로 참여시켜 <100분토론>을 자신을 부각시킬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박진수 위원님도 <100분토론>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슈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양 측의 토론이 진행된 것에 대해, 워낙 첨예한 이슈라 과연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솔루션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청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토론의 목적과 취지는 잊혀 진 채, 양측의 논리 없

는 대립과 가짜뉴스로 인한 혼탁 양상은 토론 프로그램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역할도 불분명하고 타이밍도 늦었으며, 토론 매너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당과 야당을 꼭 섭외해야 했는지 묻고 싶고, 뻔해 보이는 토론 양상을 충분히 예상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패널 구성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행자의 토론진행 역량도 타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801~840회 총40회 분량의 주제를 분야별로 나눠보았더니, 경제 관련 주제는 6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시청자위원회 의견과 같이 경제이슈를 늘려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다이어리>(8/26)는 진행자인 여자 아나운서의 복장이 사실 일부 시청자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한때 기상캐스터와 스포츠캐스터의 노출 복장이 경쟁적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노출을 통한 시청률 확보는 MBC에서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제안되었던 아이템으로 자녀교육이 주제여서 <공부가 머니?>(8/29)를 더욱 기대하고 시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보기 힘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흥미롭게 고민할 지점을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이 자녀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이 자녀들의 역량개발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구체적인 검사 수치와 실증 사례를 가지고 찬찬히 잘 풀어내는 점이 감탄스러웠습니다. 좋은 취지의 좋은 콘텐츠로 시작한 프로그램인 만큼, 그 목적을 충분히 살리고 원래의 취지를 잘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에게는 반성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특히 시청자와의 공감을 가장 중시하여, 일부 연예인이나 일부 계층의 고민만을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주52시간 근무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었는데 소비지형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52시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피는 특별기획 및 기존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활용한 편성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성현 위원 : 한 가지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에서 신문사와 방송사들에 대해 발표한 게 있는데요, MBC에서 잘한 보도 중 조국 5촌 조카와 웰스씨앤티 녹취록에서 다른 방송사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건 좋은데요, 문제는 '조국 5촌 조카' 보도에서 5촌 조카와 상관없이 조국 장관 사진을 어깨걸이에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박성제 보도국장 : 김수정 위원님께서 추석 명절 <뉴스데스크> 보도가 여러 가지로 아쉽다, 특히 교통정보와 사건, 사고에 치중해 있다는 취지로 몇 가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토, 일은 평상시 편성대로 하고 수요일부터 축소 편성했습니다. 원래 85분인데 수요일은 1시간, 목요일, 금요일은 40분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연휴 때는 조금씩 줄이는 게 상례인데요, 편성과 논의 후 이번에는 좀 더 줄여서 40분 방송으로 기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명절 때는 보도할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관공서나 사회 모든 분야가 쉬는 날은 뉴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뉴스가 부족해서 뉴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획뉴스를 하루에 2~3개 정도 준비하다 보면 나머지 7~8개는 뻔한 뉴스가 보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이 되면 헬리콥터를 활용해서 고속도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늘 고민입니다. 이번에는 도로공사의 노동자들 농성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 진행했는데 결국 여느 연휴 때보다 나을 게 없는 뉴스로 채워진 것 같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힘을 주려고 했던 것이 명절에 일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의 사정이나 농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건, 사고도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미흡한 뉴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명절 때마다 바뀌는 분위기, 세태,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한 뉴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내년 설 명절 때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박성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조국 관련 보도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에서 ‘나는 조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녹취록이 우리만 나간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녹취록을 자한당 의원이 4개 언론사에만 제보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 녹취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는 이 녹취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취록의 요점만 알려졌는데요, 그 녹취록 중에 우리 법조 출입기자들이 핵심적인 것들을 훑어보고 보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녹취록을 제공한 야당의원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나름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촌 조카 속보를 하는데 어깨걸이에 조국 장관 얼굴을 왜 쓰는가, 실루엣 사용을 MBC가 많이 했다는 지적은,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5촌 조카 위주의 수사 속보에는 조국 얼굴을 쓰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부인이나 딸과 관련한 얘기는

부인이나 딸 얼굴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조국 장관의 얼굴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촌 조카는 조국과의 관련성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기로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조국 관련 보도를 초반에는 의혹 위주로 보도하다가 최근 좋아졌다, 검증과 확인에 따라서 취재한 내용을 전하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조국 보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진영논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언론사들의 조국 보도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 장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야당성향이나 중도성향을 떠나서 사안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MBC는 그러한 진영논리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 조국 관련 보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초반에 사모펀드가 나오고 판단이 잘 안 섰지만 바로 검증팀을 만나서 조국 장관 딸의 논문 문제 등을 집중취재로 보도했고, 아시다시피 논문 문제는 병리학회에서 취소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표창장 문제도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인터뷰도 제일 먼저 보도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반전과 반전이 거듭되다 보니 무엇이 진실인지, 검찰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보도는 엄격하게 해야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유지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 기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문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확인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표창장 위조는 과연 이게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 하는 것을 짚어내자고 토론했습니다. 탐사기획팀이 미성년자 논문을 취재한 것은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에 데이터 전문기자가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해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논문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번번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얼마나 광범위한 건지 파악하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2014년, 학생부종합전형이 제일 범람할 때 미성년자 논문이 1200여건, 그리고 그중 미성년자가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이 400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부모와 지도교수가 누구인지까지 파악하고자 취재 중입니다. 이것이 조국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상관없이 취재한 것입니다.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지 않도록 정확히 취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마을 집중보도에서 마을이 겹치는 것은 담당기자가 이틀 정

도 취재한 것을 사흘 동안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인터뷰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뉴스데스크>만의 개성이 담긴 목소리, 견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박영회 기자는 팩트를 중요시하고 본인 의견을 가급적 배제하여 풍성한 팩트로 승부하는 스타일입니다. 팩트를 많이 보여주면 저절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알게 된다는 신념을 가진 기자입니다. 박영회 기자에게 데스크와 상의해서 좀 더 과감한 시각을 넣어보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뉴스데스크>에 대한 부분은 칭찬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수의견’, ‘바로 간다’, ‘법이 없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시리즈입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 연속보도 역시 명절에 해보려고 통일외교팀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것인데 사실 국정원 취재가 어렵고 잘 안되었습니다. 팩트가 모자랐고, 결국 있던 것을 재구성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 이러한 진중한 보도를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언론개혁의 문제를 다루는 기획은 MBC도 개혁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 MBC뉴스가 모자란 것이 많을 테니 그런 차원에서 뉴스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 시작을 8시로 해달라는 말씀이나 뉴스 시간을 더 길게 해달라는 의견은 MBC뉴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최근에 시청하기 시작한 분들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아마 7시30분에 계속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 70분 정도 방송되는 뉴스가 매일 매일의 이슈를 다루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정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보도제작국장님.

박준우 보도제작국장 : 박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8/19) 61회 ‘목숨에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 편이 참된 저널리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시고 격려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아이템이 반향이 있었던 것이,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정부나 국회에서 많이 바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 의미가 있었고 후속취재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2일에 방송된 ‘논두렁 시계의 배후’ 편에서는 박성현 위원님께서 시의성도 있고 언론의 본분을 다한 점은 알겠으나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기획은 5월 말, 중순 정도였고 방송은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하고 그 시점에 맞춰 8월 초에 미국출장을

가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포착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9월2일에 방송된 것은 그 취재 분량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8월2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을 9월2일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9월 23일에 후속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100분토론>(8/27)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7일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선후보 토론 때도 그렇지 않은데, 토론 시작 전부터 여야의 힘겨루기 같이 첨예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에 대해서 발언시간도 제한해 2분씩만 발언하게 한다는 규칙도 도입했지만 양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야 모두 본 사안이 큰 이슈가 되니까 당황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섭외하던 패널의 양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첫 TV 프로그램으로 기선잡기에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에 여야 모두 공격력이 강한 패널이 출연했고 토론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의 어떤 특성을 놓고 본다면 뭔가 가장 첨예하고 절정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토론 시작 전부터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자의 가장 큰 역할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8월27일은 사실상 지상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조 후보자의 논란을 본격적으로 다룬 날이어서 토론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자의 진행은 KBS <심야토론>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봐도 <심야토론> 사회자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이다 보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패널구성을 왜 정치인 토론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기회의 불평등, 젊은 층의 불만도 있어서 시민사회나 청년 패널 위주로 진행할 것도 생각해봤지만 규모가 커지다 보니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이슈 채택이 적다는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 사회나 시민사회의 주된 쟁점이 경제를 위주로 이뤄지는 부분이 드물다보니까, 선도적으로 의제설정을 경제문제로 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주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장관 논란은 추석 때까지 4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이슈보다 우선으로 8월27일에 토론을 한 번 했고, 9월3일에 했습니다. 오수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토론은 9월10일 토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굉장한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온 국민이 자기의 생활 공간속에서도 이 문제를 약식토론 할 정도였지만 막상 9월10일이 되어 3주 정도가 지나가니까 누구도 이 토론에 출연하지 않으려 하고 뭔가 버거운 토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패널의 태도문제를 얘기해주셨지만 그 분도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누구든 나가야 되는데 대표선수처럼 나온 게 아닌가. 토론이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하는데 9월10일은 국회의원이 아닌 분도 출연해서, 저희도 당의 입장만 되풀이 하는 패널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교수, 전문가,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패널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고도로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정치권 패널을 섭외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치인 패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지만 정치인 패널을 모든 사안에서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감하고 양분된 진영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토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아이템에선 충분히 반영해서 패널 구성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근 스포츠제작부장님.

송민근 스포츠제작부장 : 네. <스포츠 다이어리> 진행자 의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니터해보니까 다소 몸매가 드러나 보이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작에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 시청률 확보 차원이 아니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옷이 좀 슬림 핏이고, 그런 경향으로 진행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받아들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교양이나 뉴스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MBC 성격에 맞게 의상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네. 다음은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님.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박진수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큰 얘기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실제 제도가 도입되어 현실상의 변화가 오고, 프로그램화되는 데 일정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프로그램화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 라이프 스타일, 삶의 가치들이 변화하는 것들은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네. 권석 예능본부장님.

권석 예능본부장 : 저도 보내주신 자료를 공유해서 PD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수정 위원 : <100분토론>에서 다루는 조국 관련 토론주제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번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진영문제도 중요하지만 받아쓰기 문제라든지 피의사실공표라든지 검토도 필요하고 인사검증에 대한 것도, 또 다르게는 최근에 청년 전태일 단체도 주목받고 있어서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20~30대들이 분노하는 조국사태의 실태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중장년층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대 차이, 입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여진 위원 : 한 달 전에, 의혹에 대해 언론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도 어렵고 특히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매일 이슈가 나와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면, 공영방송이라면, 이 이슈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다뤄야 할까 하는 고민이 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체에서도 다들 힘들어 합니다.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박성제 보도국장 : 일부 유력인사들이 언론을 마치 의혹 보도의 본산으로 몰고 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지금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듯한데, 잘못된 점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을 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이 의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결국은 드러난 사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문제, 표창장 문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조국 장관의 모든 것이 면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SNS나

인터넷 중심으로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기자들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매도되는 상황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그럼 이어서 드라마, 예능, 라디오 분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이상길 위원 : 두 가지 프로그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탐나는 TV>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10분부터 50분간 MBC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MBC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가끔 젊은 패널들이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 시원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지난 8월31일 프로그램에서는 옥의 티라고 할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이 지적할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날의 프로그램 주요 주제 중에 '시청자 Pick'에서 선정된 <라디오스타>, <선을 넘는 녀석들>에 대한 시청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해왔던 패널 중에 다른 때보다 지나친 표현이 있었고, 화면처리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패널 중 여성위원인 김선영 위원이 <라디오스타>의 게스트인 이동우와 조나단의 재치 있는 발언을 칭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장영란에 대해서는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이 신선한 의미를 주는 이야기를 함에 비해 장영란은 성형과 아이라인 이야기 밖에 못한다. 외모에 편중된 얘기로 불편하다."는 직설적 표현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민망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게스트가 제한되어 있어서 자세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대상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시청자들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유독 '장영란'이라는 이름을 노골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제 느낌입니다만, 장영란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우려되고 적절한 표현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구태여 비판의견을 제시하는 김선영 위원 배경에 화가 난 것처럼 불꽃 화염을 그려 넣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승한 패널의 경우도 "원흠과 장영란은 폭주기관차 행"이라고 비평한 것도 객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탐나는 TV>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시청자 Pick' <MBC 관련 키워드>, 둘째 '도마 위의 TV' 그날은 드라마 <황금정원>을 비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시간 50분 정도에 '도마 위의 TV'에 대한 내용은 약25분 이상을 할애함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시간이 13분 정도 되었죠. 물론 <황금정원>을 모르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탐나는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됐다고 생각할 듯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12분 동안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후반부에 각 패널 마다 인상 깊은 출연진을 일일이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탐나는 TV>의 많은 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자체 프로그램의 홍보에 할애 된 것 같은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 진행된 MBC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요약하여 본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제 얼굴이 나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았고 (웃음) 잠깐이라도 언급하면 내용이 어떻든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노력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니네 쌀롱>입니다. <언니네 쌀롱>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9월5일(목)과 9월12일(목)에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부터 본격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같은 게스트들이나 출연진들이 나와서 식상했는데요, 출연진들이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손연재 전 체조선수의 스타일이 전문가에 의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그맨들도 동원돼서 유머를 제시한 부분도 잘 기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그맨들을 초대하면 언어의 유희나 유머로만 몰아가다 보니까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있어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개그맨의 본질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면서 게스트가 선별이 잘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 후 바로 <언니네 쌀롱> 홈페이지 게시판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게시판 의견이 전부 본인이 참여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은 유명인들을 초대해서 메이크오버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짜여 있으므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시청자들이 자기가 변하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가끔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일반 시청자를 초대해서 재미를 주거나 유용한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이어서 전경란 위원님.

전경란 위원 : 안녕하세요. 전경란입니다.

<언니네 쌀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8월에 홈페이지에 예고된 것을 보고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살짝 걱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케이블에서 나온 <렛미인>이 떠오르면서, 외모지상주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었고요. 진행자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여성 진행자로 그분이 되었다는 걸 보고 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지탄 받을 이유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내용을 봤더니 여성 출연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스타 개인이 자기가 일상에서 맞닥뜨린 것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금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손연재 전 체조선수의 경우는 운동복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여성으로서의 외모를 갖추고 싶어 하는 욕구, 또 쓸 만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기 원하는 요리사, 어린 딸에게 또래 친구들의 아빠만큼 젊어 보이기를 희망하는 아버지의 사연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잘 연출된 외모가 비즈니스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손연재 전 체조선수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나 가벼운 화장, 평범한 옷차림을 “러블리한 컬의 히피펌 헤어”라는 저도 잘 모르는 표현을 얘기하면서 “입체감을 살린 음영 메이크업”, “루즈한 니트와 샤스커트를 매치한 프렌치 시크 스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평소에 이러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오버 전이 오히려 보기 좋았는데 진행자를 비롯한 패널들이 너무 찬사를 보내니까 동의하기 어려웠고요, 또 이런 서사가 단순히 여성 출연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 출연자에게도 전문가가 스타일링하기 전 모습을 “아무거나 주워 입은 룩”으로 폄하하거나, 개그맨의 경우는 어린 딸에게 다른 친구들의 아빠처럼 젊어 보이길 원하는 모습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늙어 보이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젊어 보이는 동안 헤어”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메이크오버 이후의 모습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출연진들의 찬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외모의 기준을 그대로 보여

주기도 했고요, 또 이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메이크오버 모습은 감췄다가 '짠!' 하고 보여주는 연출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힐링이나 내면까지 책임지는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전제되어 있거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주장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기획의 프로그램을 MBC에서 공들여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물론 패션과 외모가 여전히 중요한 시대이니까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고, 예능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너무 정색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해온 MBC다운 예능, MBC의 결을 살린 예능이라는 기존의 지향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영되는 줄 알았는데 정규편성 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1회에서 20분에 걸쳐 설정과 캐릭터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설정들이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굳이 출연진을 대표, 매니저, 시술전문가, 인턴, 손님의 역할로 구성했다면 고정 출연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역할 활동이 토크를 비롯하여 내용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시술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각자 재미있는 말만 하는데요, 자기 역할을 한정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크쇼를 표방했지만 토크쇼가 될 만큼 구성의 짜임새를 갖추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석희 위원님.

정석희 위원 :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의 가치에 합당 한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말 예능의 양대 산맥이죠, <놀면 뭐하니?>, <같이 펀딩>이 순항 중입니다.

<놀면 뭐하니?>가 초반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유플래쉬', '대한민국 라이브'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펀딩>은 시류와 맞물려서 시작 전부터 관심을 받았죠. '유준상의 국기함'이 시청률과는 별개로, 제가 이 글을 낼 때가 16일이었는데 달성율 10,000%를 넘었고 오늘 보니 12,240%더라고요. 엄청난 초과달성인 것입니다. 시청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같이 펀딩>이 스스로 입증한 셈이죠. 그리고 태극기함 프로젝트가 너무 강해서 그 뒤의 주제들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유인나의 오디오북'도 보기 드문 영상으로, 함께 하는 작

업의 가치를 되새기는데 한 몫 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MBC 예능,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시청자위원으로서 반가웠습니다.
<같이 펀딩>(9/1) 3회 방송 때, 독립투사가 드신 음식을 재연한 익선동 독닙료리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 바로 몇 시간 후에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3회도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김치찜을 비롯한 메뉴 소개가 똑같이 반복되었는데요, 이곳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시청자들이 찾아갈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없어질 장소를 왜 두 프로그램에서 같이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사이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공부가 머니?>가 정규편성이 되나요?

권석 예능본부장 ; 네.

정석희 위원 : 방송이 본래의 기획의도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낳을 때가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매회 끝날 때마다 다음 날 한 시어머니가 정말 인터넷에서 집중포화를 당하곤 했는데 <공부가 머니?>도 같은 경우였어요. 방송이 끝나고 두 어머니가 1회, 2회 계속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입 도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서 욕을 먹었는데 이게 사실 기획 의도는 '교육비는 반으로 줄이고, 교육효과는 배 이상 높이는 에듀 버라이어티 관찰 예능'이라는 거창한 예를 들었는데, 방송이 끝난 다음에 사교육과 입시 컨설턴트에 대한 관심만 높아진 셈이죠. 컨설턴트라고 나와 있는 그 흐름을 주도한 분은 사실은 돼지엄마잖아요. 그 엄마는 나와서 굉장히 반사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분 찾는 분 많았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입시전쟁에 휘말린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나를 따르면 서울대, 하버드를 갈 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상위 1%를 강조하고 지능지수가 나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뭐고, 그걸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뭔지, 저는 MBC가 이런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펀딩>이 지상파 방송의 가치에 합당하다면 <공부가 머니?>는 반하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네. 윤여진 위원님.

윤여진 위원 : <공부가 뭐니?> 1회와 2회를 봤는데 사실 아슬아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교육을 맡았다면 요즘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이 교육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중요한데요, 어떻게 다룰까 하고 시청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이유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각각 주어진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잘 하기도, 못 하기도 하고,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아슬아슬하고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다. 몇몇 컨설턴트가 마치 해답을 주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위험하고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정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시민으로서 쉽지 않았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7월1일에 새로운 사회자와 함께 진행하며, 타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과의 경쟁에서 청취자들이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이 가진 위력은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정감과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에 대해 제작진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종배 씨는 오랫동안 <시선집중>에서 뉴스브리핑과 비슷한 시사 프로그램을 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믿고 갈 수 있는 사회자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작진은 계속 고민이시겠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더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화인터뷰뿐 아니라 누가 나와서 사회자하고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섭외할 것인가, 이슈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 사회자가 질문을 어떻게 던져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씨처럼 너무 세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밋밋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몇 회를 들었는데 예산문제 경우는 계속 들려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들어서 학습해야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잘 알아서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예산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기간에는 서해성 작가가 우리의 상장례문화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었고, 청취자들도 새삼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절 끝나자마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김기창 고려대교수, 송기호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나오셨어요. 첫 번째 김기창 고려대교수의 경우는 장관 부인과 관련한 하드디스크 교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조국장관의 이슈가 검찰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혼란에 빠지고 검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

가, 지금 국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을까, 굉장히 복잡한 심정인데 증거인멸을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방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로서는 '증거인멸을 저렇게 허술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검찰 얘기인데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언론과의 문제, 이것은 오래된 얘기죠. 지금 조국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 문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월요일 지나고 나서 그런 이슈들이 나왔죠. 조국 장관도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겠다, 공보준칙과 관련된 것도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지금 하는 것에 있어선 수위조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얘기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의견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문제의 시작이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 침략기의 인권침해 프레임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회복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인식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민심에 관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의 인터뷰인데요, 이슈와 함께 연관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지 잘 보여주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번에 보수매체가 과도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국'이란 단어가 다른 보수매체와 진보 매체에서는 오히려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이슈 몰이를 하고 있구나, 잘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론이 시민들과 함께 여론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현실을 관통하는 문제여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까지만 보여주지 말고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는 언론이 주는 이슈에 대해서 신뢰했었는데 재반박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어디에 나의 알 권리가 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대에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김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분

토론>에서 이런 현상과 관련된, 아니면 시사교양도 좋고 라디오도 좋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어떻게 관통해야 잘 하는 건지에 대해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홍성재 위원님이 불참하셨는데 의견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의 관점에서 본 <언니네 쌀롱>’에 대해 의견 주셨는데요, 스타의 의뢰를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프라이빗한 살롱에 모여 스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변신시켜주는 신개념 메이크오버 토크쇼, <언니네 쌀롱>을 오픈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될 만큼 역량있는 전문가 군의 확보와 스타라는 VIP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창업의 관점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회 시청 후에 창업의 관점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대표로 등장하는 한예슬 씨의 역할이 아쉬웠는데요, CEO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디렉팅을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라이빗 서비스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고객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불편함과 혼선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쌀롱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인원 배치로 각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보다는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1회에서 2회로 넘어가면서 등장한 스타들은 이전보다 스타일링에 대한 필요성도 돋보였고, 변화 후의 모습이 전문가의 촬영으로 좋은 사진으로 기록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질 좋은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권석 예능본부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석 예능본부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럿 네 편을 했고, 이번에 <언니네 쌀롱>, <편애중계>, <공부가 뭐니?> 세 편이 정규화 되었습니다. 경쟁력이나 화제성을 기반으로 편성과 상의해 결정했습니다. 정규화 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피드백을 안팎으로 많이 받았고 그것을 모두 반영해서 <구해줘! 홈즈>처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네 쌀롱>은 시청률도 괜찮았고 화제성도 높았고 ‘짤방’이라 하는데 손연재 전 체조선수나 김수용의 비포, 애프터에 대한 조회 수도 높았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 화제가 되고 있고 MBC의 올드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를 소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도 간접이나 가상광고에서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언니네 쌀롱>은 입봉한 PD 작품으로, 구성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자 역할을 정리해야 하는데 불안하니까 많이 모으기만 했

고 교통정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웃기려다 보니 맥락을 놓쳤는데요, 이러한 점은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우선은 연예인이나 셀럽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김수용 씨처럼 사연이 있는 셀럽을 출연시킬 계획이고 향후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특별한 날이거나 사연이 있으면 출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우려에 대해 연출진도 숙지하고 있는 바, 유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진행자 관련해서 한예슬 씨가 워낙 이런 쪽을 좋아해요. 패션이나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본인도 이 프로그램에 몰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해맑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알맞은 역할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역시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 데에 기획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며 자신감을 회복해주고 시청자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팁을 주는 의도를 잘 살린 것입니다. 메이크오버 쇼는 사실 케이블에서 많이 했던 것이고 지상파에선 처음 하는데요, 차별화에 주안점을 둬서 토크쇼를 콘셉트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지상파가 달라야 하는 부분, 우려되는 점을 모두 포함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같이 펀딩>은 김태호 PD가 오랫동안 고민한 야심작입니다. '펀딩'의 아이템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진정성이 넘치는 방송이 됐고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이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펀딩에도 참여하고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살리겠습니다. 시청률은 미흡하지만, 좀 더 액티브하고 야외로 나가는 그림도 많이 넣으며 다양한 아이템을 다루어 경쟁력을 올리겠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과 아이템이 겹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더 세세하게 체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툴을 만들겠습니다.

<공부가 뭐니?>는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기에는 거대담론이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의도는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교육정보를 제공하겠다,'였는데요, 욕심이 다소 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주에서 제작한 방송으로 시청률이나 화제성은 좋았습니다.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것도 많고 뭇매를 맞은 거죠.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절대적으로 사교육 조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도서산간 지역의 학생들이나 소외계층 가정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정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안혜란 본부장님

안혜란 라디오본부장 :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두 달 정도 넘었는데요, 김종배 씨가 베테랑이라서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워낙 핫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뉴스 소비자들은 스트레이트 뉴스를 재미없어 합니다. 뉴스의 이면을 이야기하고 분석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바로 그런 경향에 맞춰서 뉴스의 의미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들으면 마지막 멘트는 늘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개편 때에는 충분히 더 이야기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을 이야기 할 때 늘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늘 공중파의 기계적인 중립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보수와 진보, 지역, 세대, 성별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는 기계적 중립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방향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민주당 5분, 한국당 5분하는 식으로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한 진실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어떤 때는 쇼 프로그램보다 더 자극적, 선정적이고 재미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떤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 구미를 맞춰서 핫하게 회자되는지 알죠. 하지만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당장 맛있는 것 몇 개 먹으려다가는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큰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는 쪽으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지금 2개월이 조금 넘었으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사담이지만,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 본 방송을 듣는 기사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3번 타면 2번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듣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구나 생각하고 (웃음),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저도 자주 듣거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비평은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말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인데 오늘 보니까 정말 방송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혜란 라디오국장 : 네. 보도국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조금 더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9월30일에 개편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행 본부장님.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탐나는 TV>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 형식적인 방송이 되지 않게 하자고 작년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비판과 함께 출연자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섭외했지만 재미있어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설이 오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프로그램 비평을 할 때 독한 스탠스를 유지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하면서 말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TV를 보는 제작자 또는 시청자들이 MBC 프로그램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재미보다는,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0.1% 더 올라가는 것 보다는, MBC가 자기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더 구축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제작진이 항상 시청률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는 바, 부담을 줄여주고 프로그램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폐부를 찌르는 지적에서 제작진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코멘트들이 있는데요, 잘 모아서 선별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희 위원 : 저희가 말한 것보다 훨씬 유려하게 더 앞서서 평가를 잘 요약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말했나.. (웃음)

이규정 위원님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이상길 위원 : 요새 지상파 방송이 OTT 플랫폼 '웨이브'를 출범했는데 제가 관심사항이라 항상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실제 지상파들이 OTT에 대해 늘 간과하는 것이, 이것을 부가적인 사업으로 여깁니다. POOQ도 굉장히 가입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웨이브도 똑같은 상태로 TV로 프로모션하는데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봅니다. 도티같이 한 번 탁 튀는 것은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각인이

되거든요. 웨이브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더 확실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지상파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젊은이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이어서 위원님 모두 공동평가 프로그램으로 <마리텔V2>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신 후에 권석 예능본부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위원 : 시즌1에서는 경쟁구도로 했었는데, 시즌2는 기부방식을 도입해 공익적 효과를 가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즌1에 비해서 현재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유튜브 개인방송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웬만큼 재미있지 않으면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편을 본 소감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연자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는 선택해서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보다가 나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게 됩니다. 다른 시청자들도 그러한 경향을 띠지 않을까.
재미있게 본 것은 '무덤TV', '구라이브' 정도였는데요, '무덤TV'는 비연예인들이 도전을 해서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김구라씨가 진행하는 '구라이브'는 계속 아이템을 바꾸면서 여름에는 물놀이할 때 조심할 점과 같은 정보를 주고, 최근에는 '진품명품'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흥미와 정보를 같이 제공해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출연자와 아이템들은 지루하고 왜 하는지, 시청자들이 볼 때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방송 출연진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폴 스포츠 편에서 '여성미 뿜뿜' 이런 표현은 좀.. 다음에 '편견 없다. 남자 폴 스포츠선수도 있다.' 물론 여성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여성미, 남성미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리텔V2> 경우는 인터넷을 염두에 두고 몇 개 그룹이 계속 반복하며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시청률의 소구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보면, 인터넷을 일부러 찾아보는 젊은이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TV방송 시청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어 복잡하게 진행되는 <마리텔V2>를 어지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은 우선 재미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나이 많으신 시청자 입장에서

<마리텔V2>가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느낄 수 있게 빨리 진행을 한다면, 재미가 없는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느껴지고 다음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위원 :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마리텔V2>의 재미는 시청자들이 올려주는 자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막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울 때가 많은데요,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용어는 정확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결 마술사가 나와서 VR, AR을 얘기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시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서 쓰일 때 좀 더 공들여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희 위원 :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쿡방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백종원 씨를 스타 반열에 올려놨죠. 그런데 시즌2는 야노시호의 통역사 외에는 크게 주목받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13회에 걸 그룹 아이즈원의 강혜원 씨가 발로 종이컵을 짚었어요. 그랬더니 장성규 씨가 '이 컵은 지금부터 제 물 컵 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강혜원 씨의 발에서는 라벤더 향이 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매운 것을 먹고 난 후엔 '모유 생각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막은 장성규 씨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회에 장성규 씨가 고정이 되었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농담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왜 매회 어린여자 아이돌이 출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4회에는 정형돈 씨가 배를 드러내고, 여자 아이돌이 화투장을 던져서 붙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생방송에서 남성 시청자들의 유입을 원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여자아이 엄마이고 손녀도 여자아이여서 그런지 불쾌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리고 화제인물인 약사 약쿠르트가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그분의 외모에 반하는 것 같은 CG가 나옵니다.

방송배경이 집의 주인은 외유 중이고 막내딸만 집에 있잖아요. 걸 그룹 아이즈원 안유진이 2003년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70%가 40세가 넘는 남자들이란 말이죠. 그 남자들이 안유진에게 대뜸 김구라, 장동민, 정형돈이 앉아서 마실 것을 내오라고 합니다. 여직원한테 커피 타오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심지어 미성년자입니다. 자기들이 가져다 마시면 되지, 그리고 남의 집에 오는 데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남성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요. 시대를 역행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작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유진을 좋아하는 시청

자들이 많다는 걸 알죠. ‘무덤TV’에서 이상한 농담이 오가는데 걸 그룹을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위원 : ‘여성미 뿜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단 거죠.

윤여진 위원 : <마리텔V1>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화제성도 높이고 백주부가 출연도 하며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스에서도 시도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화제성이 있었죠. 시즌2는 보다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오고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만 포맷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대는 많이 변화되어 누구나 유튜브를 하고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비슷한 포맷으로 재미적인 요소를 높이는 것으로는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을 중심으로 새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지금 시대와 새로운 플랫폼 변화에 맞는 소통을 주제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란 위원 : <마리텔V2>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확산시킬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서 화제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연진마다 시청률이 들쑥날쑥 한 것을 어떻게 조정할까 고민이 있고요, 포맷이 너무 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덤TV’가 꾸준히 일반인과 연예인이라는 대결구도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시청자도 생깁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는 단발성으로 잠깐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되고 하는데요, 조금 더 관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출연진들이 연령 높은 남성분들이어서 여에스더나 야노시호도 출연했지만, 조금 더 여성 출연자도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동현의 주짓수’, ‘야노시호의 홈 트레이닝’, ‘솔라 폴 댄스’ 등이 실내운동 콘텐츠 채널로 인기가 있는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주짓수 운동은 저희 집 근처에도 생겨서 놀라울 때가 있는데, 두 분이 끌어안고 누워 계세요. 왜 못 움직이고 가만히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동현의 주짓수’를 보면서 그 자체가 힘든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보여줄 때 단순한 묘기나 기술소개뿐 아니라, 야노시호 편에 등장했던 통역사처럼 못하던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좀 더 그 분야에 몰입하고 자기의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성장스토리를 볼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실험성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서, 처음 등장했을 때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구나 생각

했습니다. 또 실제로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재미있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집에 가면 MBC를 틀어 놓고 있다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의 주 시청층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템 소재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젊은 사람 취향으로 가려면 완전히 그쪽으로 가고, 편성을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시간대면 시청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이템에 변화를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핫한 출연자들이 나올 때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규 예능3부장 : 감사합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주셔서 무엇부터 대답해야 할지.. (웃음) 의견주신 내용 하나하나 저희도 공감하고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라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에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리텔V2>로 넘어오면서 시즌1의 참신성이 많이 없어지고 시청률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무리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 출연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는 듯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즌1이 처음 나왔을 때는 첫 시도여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녹화를 할 때만 해도 화제가 컸었거든요. 그로 인한 홍보효과도 컸는데 벌써 1~2년이 지나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가 오다 보니까 <마리텔V2>를 하면서 시즌1에서 얻었던 효과를 또 얻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새로운 인물이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안에 있는 인물들 간의 케미스트리를 만들어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할되어 있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 관심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다음 내용이 나와 버리고 이번 회 차와 다음 회 차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내에서도 출연자들을 새롭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판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여성 관련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문화나 서브 컬처 자체를 다루고 있고, 인터넷 방송 하듯이 녹화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방송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을 때 주의를 주고, 그 이후에는 출연자가 자제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러한 점들이 줄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편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대가 맞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번 가을개편에서는 편성이동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자막오타도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으로 출연자별 편차가 <마리텔V2>가 가진 숙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 아이템을 다루다 보니, 한 출연자가 프로그램을 쭉 이끌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추가의견 주실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정규 부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현 시청자심의국장 : MBC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일에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MBC는 올해 한국방송대상에서 4개의 작품상과 4개의 개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연속보도'가 뉴스보도부문상을 수상했고요, <구해줘! 홈즈>가 연예오락TV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가 생활정보라디오상을 받았고, <별이 빛나는 밤에> '50주년 특집'이 연예오락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구해줘! 홈즈>는 방송시작 첫 해에 수상해서 콘텐츠 파워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저희가 작품상을 하나도 수상하지 못했고요, 개인상만 4개 수상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MBC 방송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라마부문에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MBC 드라마 극본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6일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미쓰리는 알고 있다>의 서영희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박세미 작가와 황수연 작가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MBC는 드라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고 좋은 작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드라마극본공모는 좋은 작가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합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을 썼던 김반디 작가도 MBC드라마 극본 공모 작가 출신이고, 10월에 방송 될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인지혜 작가도 이 극본공모 출신 작가라고 합니다.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웨이브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POOQ과 SK의 옥수수가 통합해서 새로운 OTT 서비스인 웨이브(www.wavve.com)가 18일 출범했습니다. 웨이브는 2023년까지 가입자 500만 명과 연매출 5천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하는데, 이번에 KBS의 <녹두전>이 웨이브로부터 100억을 투자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MBC도 내년에는 웨이브의 펀딩을 받아서 대작을 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상파 광고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웨이브가 OTT 시장에서 선전하길 기대하고요, 위원님들도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연경 아나운서가 이번에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합니다.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고요, 9월26일에 첫 녹화하고 10월에 방송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7개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4~7번은 민원인들의 의견대로 수정,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1~3번은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보도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삭제할 수는 없다는 보도국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내용을 소개한 아이템의 경우, 직접 인터뷰가 아니니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보도국에서는 뉴스밸류가 있어서 보도를 한 것이라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다음 달에는 10월25일(금) 오후3시에 시청자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변창립 부사장 :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정 위원장 : 다음 달에는 개편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